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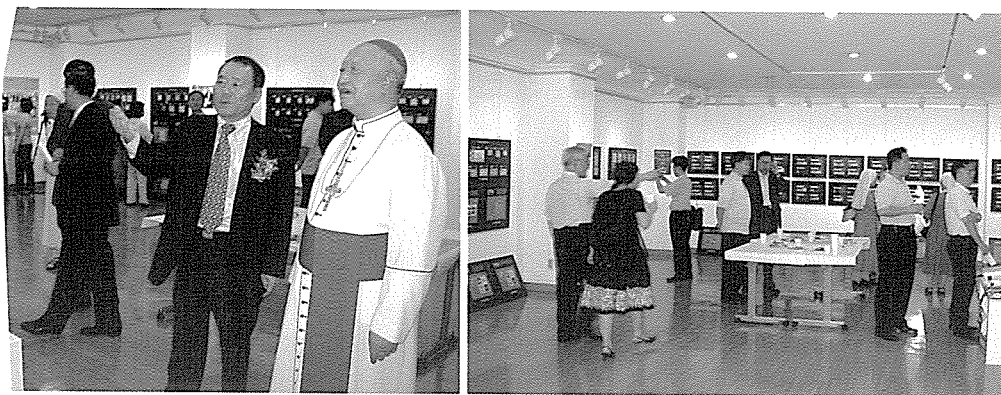


2006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코엑스서 열려

지난 8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코엑스 태평양홀 제4전시실에서 「2006 대한민국 우표전시회」가 열렸다. 올해로 49회를 맞이하는 우표전시회는 매년 여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우표 수집가들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들였다.

특히 올해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표를 디자인하고 있는 우표 디자이너의 사인회, 우편 퀴즈대회 등 눈길을 끌만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독도의 역사와 생태를 사료를 통해 볼 수 있는 독도관이 개관되어 참가자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대한적십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표전시회에 참가, 우표와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찢어 전시되어 있는 모습에 신기해하고, 어른들은 확장시절 열심히 모았던 찢을 구경하며 확장시절의 추억에 젖는 등 어른, 아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감이 장'이 되었다. 특히 독도의 자연을 주제로 한 2006년도 크리스마스 찢(10월 1일 발행예정) 도안은 수집가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한여름에 만나는 크리스마스 쉼” 명동 평화화랑서 제1회 쉼 전시회 열어

대한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 쉼과 결핵이 별개가 아님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쉼에 대한 관심을 결핵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짓기 위해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제1회 크리스마스 쉼 전시회를 명동 가톨릭 회관 평화화랑에서 개최했다.

전시 첫날인 8월 9일에는 협회 김성규 회장, 김성권 사무총장, 정진석 추기경 외 관련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 행사를 가졌으며, 김성규 회장은 “우리나라의 결핵 발병률 및 사망률은 OECD 가입국 중 최고”라며 결핵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전시에는 협회 창립 이전인 1932년 캐나다 선교의사 셔우드 홀이 국내 최초로 발명한 크리스마스 쉼을 비롯해 협회 창립년도인 1953년부터 2005년도까지의 크리스마스 쉼을 전시했다. 특히 세계 112개국에서 최초로 발명된 크리스마스 쉼이 전시되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쉼’ 하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는 것이 사실이다. 크리스마스 우편물에 우표와 함께 붙여 결핵 환자들을 도왔던 데서 유래된 쉼의 태생 자체가 크리스마스와 연관이 있어서이기도 한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크리스마스면 어떻고 한여름이면 어떻겠는가. 이번 제1회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결핵과 크리스마스 쉼에 관심을 갖기를 기대해 본다. †